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독수리 '자연 품으로'

전북야생동물구조센터 군산시 구조 치료 매진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센터장 한재익 교수)가 멸종 위기종 II급 야생동물인 독수리(천연기념물 제243-1호)를 구조·치료해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이 독수리는 지난 2월 17일 군산시 화현면 금광리 신기촌 마을 앞에서 발견돼 군산 철새 조망대에서 구조한 뒤 그간 전북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치료와 야생 적응훈련 과정 등을 거쳤다.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2월 28일 오후 2시 최초 발견했던 곳에서 한재익 센터장을 비롯해 치료를 담당한 수의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수리를 방생하는 행사를 가졌다.

구조 당시 독수리는 마을 인근의 논에 쓰러져 있었으며, 기압이나 비행 모두 불가능한 상태였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옮겨진 독수리는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멸종위기종 II급 야생동물인 독수리를 구조·치료해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검사 결과 농약 중독과 음식물 정체가 확인돼 응급 처치를 받았고 센터 직원들의 극진한 관리와 치료 덕분에 빠르게 회복해 자연으로 돌아갈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

한재익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은 "우리 센터는 독수리나 수리부엉이 등 멸종 위기종이나 한국에서 드물게 관찰되는 야생동물을 구조해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생행사를 통해 자연 보호의 가치를 알리고 야생동물이 인간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개학기 학교 주변 교통안전점검 실시

김승환 교육감, 등교시간에 양현초 앞 교통지도 나서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개학기 학교 주변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4일 오전 8시 20분부터 전주 양현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교통 안전 지도활동에 나섰다.

김 교육감은 "어린이들은 교통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적극적인 교통 안전 지도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사고 위험에서 지켜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이들에게 교통 안전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운전자들이 학교 주변에서 안전 운전을 통해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어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지자체, 경찰서와 연계해 점검반을 편성, 오는 22일까지 유·초·특수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상으로 교통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기간에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 범규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의무 이수 집중 점검·단속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관리 확인·단속 ▲사고위험구역 전문가 합동 진단 실시·개선방안 마련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등을 벌인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다각적인 홍보를 펼치고, 학부모안전도우미회·녹색어머니회 등과 합동 홍보 캠페인을 추진해 등·하교 시간대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횡단보도·과속방지턱·안전표시 등 안전시설과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 교통안전시설 점검 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주변의 각종 위험 요소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노후하거나 미흡한 교통시설물을 지자체 및 경찰서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어린이 교통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열정과 자신감 가지고 도전하는 호원인이 되기를"

호원대, 신·편입생 입학식 거행

호원대학교(강희성 총장) 2019학년도 입학식이 4일 오전 11시 호원문화체육관에서 강희성 총장 및 주요 대학 관계자들과 신입생, 학부모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2019학년도 과정별 신입생은 신입학 1,173명, 편입학 285명, 위탁신입학 172명, 위탁편입학 208명 등 총 1,838명이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강희성 총장은 2019학년도 입학 대상자 1,838명에 대한 입학허가 선언을 시작으로, 엄선우 학생(국방무기체계학과)과 한승희 학생(항공관광학과)이 신입생 대표로 나서 재학하는 동안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열의와 성심을 다해 면학정진에 힘써 미래 인재를 개발하는 학교실천목표에 성실히 따를 것을 선서했다.

또한 자동차기계공학과 서성원 학생의 293명의 장학생이 인당장학금을, 간호학과 김사람 학생 외 38명이 내신우수장학금을, 치위생학과 나세현 학생 외 157명이 수능우수장학금, 작업치료학과 김하은 학생 외 88명이 국가장학금을 마지막으로 기계자동차공학과 박기수 학생 외 39명이 다자녀장학금에 대한 장학증서를 수여받



호원대학교 2019학년도 입학식이 4일 오전 11시 호원문화체육관에서 강희성 총장 및 주요 대학 관계자들과 신입생, 학부모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았다. 강희성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학이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열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호원인이 되기를 바라며, 목표와 계획을 세워 성실하게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입학식을 마친 신입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호원 희망 디딤돌 프로그램의 OT 및 입교식이 열렸다.

'2019 희망 디딤돌 프로그램'은 신입생들의 학습동기 및 대학 적응력을 높이고 4년간의 대학생활 설계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희망 디딤돌 프로그램은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진행하며 학과소개 및 학과 알아가기, 직업흥미검사, HOPE 설명회, 명랑운동회 등 신입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정년퇴임식 개최

전주대(총장 이호인)가 지난 달 28일 교직원 6명의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정년퇴임한 교원은 임철호(한국어문학과), 장선철(상담심리학과) 교수와 직원은 김정인(도서관), 유의용(의과학대학), 김재열(사회과학대학), 정종원(입학지원실) 실장 등 6명이다.

정년 퇴임식에는 이호인 총장을 비롯해 양병선 부총장, 대학평의원회, 교무위원 등 교내 인사와 정년퇴직자 가족, 동료, 제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호인 총장은 "30년 이상 함께해 온 동료들 떠나보내며 아쉬움과 슬픔이 앞선다"며 "몸은 떠나지만 마음만은 전주대의 도약과 발전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호인 총장은 정년퇴임하는 교수 및 직원 모두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로패와 부상을 전달했다.

퇴임하는 임철호 교수는 "전주대와 40년 동안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전 구성원과 가족의 도움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퇴임식에서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포상 수상자도 선정되었다. 임철호·장선철 교수가 황조근정훈장(차관급)을 각각 수여받았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김동원 총장이 개강 첫날부터 소통 행보를 이어가며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대 김동원 총장, 개강 첫날 공감 행보 호응

"개강을 맞은 여러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이 개강 첫날부터 학생 등 구성원들과 긴밀한 소통 행보를 이어가며 큰 호응을 얻었다. 김 총장은 개강을 맞은 4일 이른 아침부터 보직자들과 함께 교문 앞에 나서 등교하는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5천명 분의 빵과 음료를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1학기 힘찬 발걸음을 시작한 학생과 교직원들은 간식과 함께 서로 간 덕담을 주고받으며 이른 아침 캠퍼스에 따뜻한 웃음꽃이 넘쳐났다.

김동원 총장은 "취임 후 맞은 첫 개강에 학생들과 따뜻한 동행의 메시지를 전하고 소통하기 위해 나섰다"며 "앞으로 학생 식당이나 실험실, 강의실 등을 상시적으로 찾아 다양한 구성원들을 만날 계획이며, 소통을 넘어 공감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개강 맞이 행사는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워주고, 소통으로 하나 되는 기회를 갖기 위해 전북대 전통으로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